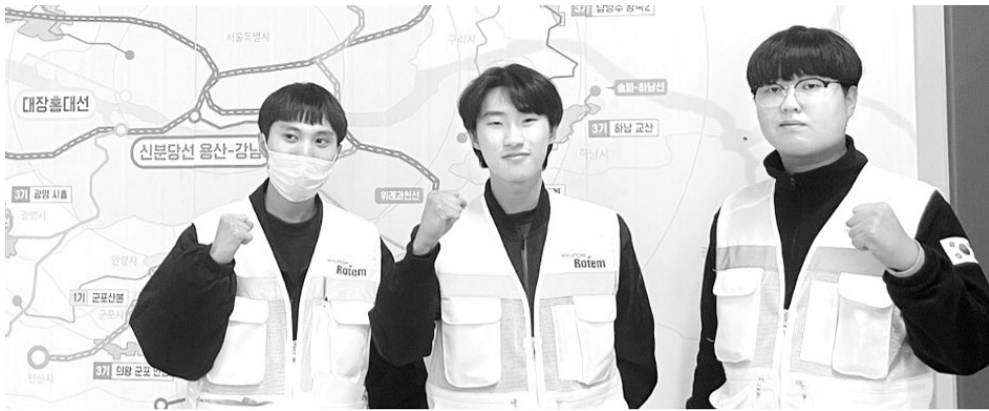


송원대 철도대학, GTX 공채 합격자 11명 배출



GTX 광역 급행철도 공채에 합격한 김수찬(왼쪽부터)·정우혁·신재성씨. <송원대 제공>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 철도대학이 GTX 광역 급행철도 공채에서 합격생 11명(철도운전시스템학)을 배출했다. 이우장(17학번)씨는 기관사로, 채종현(18학번)씨 등 졸업생 3명과 김수찬(19학번) 등 재학생 7명은 시운전 운영요원으로 취업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학습한 이론과 실습(시뮬레이터 등) 기술을 바탕으로 협업에 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기관사로 취업한 1명은 본선을 운행하는 기관사로 투입된다. 한편, GTX 광역 급행철도는 수도권 대심도 지하구간 30~50m 구간을 운행하는 철도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서해해경청, 광주장애인정보화협회에 전산장비 전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민창)은 19일 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사단법인 광주시 장애인정보화협회에 불용 전산장비를 무상 양여, 나눔 문화를 실천했다. <사진>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불용물품의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불용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청은 활용가능한 전산장비 노트북 4점을 광주시장애인정보화협회에 무상으로 양여했다. 광주시 장애인정보화협회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식 제고를 위해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게 정보화 무료 교육 실시, 컴퓨터 보급 사업 등을 진행하는 단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정인 동신대 군사학과 졸업생 임관 후 첫 봉급 모교에 기부



올해 동신대학교 군사학과를 졸업하고 육군 장교로 임관한 이정인 소위(사진, 학군사관 62기)가 임관 후 받은 첫 봉급을 학교에 기부해 화제다. 육군 장교를 꿈꿔왔던 이 소위는 올해 2월 육군 참모총장상 수상과 함께 육군 포병장교로 임관한 바 있다. 이 소위는 "동신대 군사학과에 입학한 이후 임관할 때까지 학교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후배들도 학과와 교수님들을 믿고 훌륭한 초급 간부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2014년 개설된 동신대학교 군사학과는 2018년 1기 졸업생부터 올해 7기 졸업생까지 전원 장교로 임관하는 성과를 거두며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현재 2~4학년 재학생도 100% 장교 시험에 합격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스트 학생들, 캠퍼스 생활 담은 책 출간



광주과학기술원(총장 임기철·이하 지스트) 학부생 6명이 최근 캠퍼스 생활을 기록한 '지스트의 온도' (출판사 퍼플)를 펴냈다. 최승규(20학번·물리학과)와 학사 졸업, 김현아(20학번·화학)와 석사과정, 윤세림·심수연(21학번·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이수민(21학번·생명과학)과, 이은찬(21학번·물리학과)씨가 그 주인공. 저자들은 지스트에서 경험한 학교생활을 수필, 시, 만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풀어냈다. 친구·후배들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회고록 형태로 집필했으며 중간중간 만화를 수록했다. 이들은 "학부 시절 겪게 되는 다양한 고민과 지스트만의 고유한 특성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미래를 함께하는 사람들, 광주·전남혈액원과 협약



사단법인 '미래를 함께하는 사람들' (대표 윤현석)이 최근 현혈집 첨단센터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원장 김동수)과 현혈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양 기관은 정기적 현혈 동참, 현혈문화 정착 지원, 건전 기부문화 및 자원봉사활동 확산, 정령문화 확산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윤현석 대표는 "현혈은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행위"라며 "현혈문화 확산을 위해 미래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미래를 함께하는 사람들'은 며 수능 떡 나눔 행사, 아동지원성금 전달, 떡국떡 나눔 봉사 등 지역 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유민 기자 lyb54@kwangju.co.kr

대한적십자사 여수지구협의회 회원들이 여수나눔터에서 제빵나눔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여수지구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전남 여수시 여수나눔터에서 제빵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회원들은 카스테라 600개를 만들어 소백초 경로당, 오전경로당과 금강원에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X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0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뽀 좋아 좋아 스페셜	30 살맛나는 오늘
11	05 불편해도 관참아(재) 10 시사기획 창(재)	00 먹살 한 번 잡힐시다(재)	15 글로벌 건강 비법 최강백세(재)	00 애니갤러리 30 안녕 자두야 45 헬로키티 X
12	00 KBS 뉴스 12	15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00 12 MBC 뉴스 25 놀면 뭐하니?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휴먼다큐 마냥 이쁜 우리맘
1	00 KBS네트워크특선 지명수배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뉴스브리핑
3	00 어린이동물터비 30 팔도밥상 스페셜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5 코드네임(재) 30 TV 유치원(재)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스튜디오 K 스페셜 30 영생앨범 산(재)	55 5 MBC 뉴스	00 시장의 품격 스페셜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00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제로 30 꿀잼 영화가 좋다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토크멘터리	5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10 어쩌다 마주친 퀴즈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월드 24 55 살리는 남자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원더풀 월드(재)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KBS 뉴스라인W	15 스모킹 건	20 대학체전:소년선수촌 스페셜 30 라디오스타	40 덩치 서바이벌-먹지빠(재)
11	30 이수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5 2024 KBS프리미어 김호중 더 심포니(재)		
12	00 KBS 중계식 <심포니 S.O.N.G>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1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00 보물지도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만국경문록(재)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17:30 하프와 친구들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07:45 꼬마버스 타요	15:15 강신주의 장차 수업
08:00 당동당 유치원	15:55 블록스
08:20 웃기는 처음 영어	16:10 당동당 유치원(재)
08:50 뽀뽀뽀 부부만	16:30 페파 피그
09:05 골짜기와 처음 수학	16:40 마사와 곰
09:20 인간이 되자!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55 꼬마버스 타요(재)
10:30 한국기행(재)	17:10 웃기는 처음 영어(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0일 (음 2월 11일 癸未)

☎ 010-9790-8237

<p>子</p> <p>36년생 갑자기 허망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풀건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겠다. 48년생 준척은 고수하되 용용성을 발휘 하자. 60년생 번수가 생겨서 곤혹스러워하는 형세이다. 72년생 상당한 성과가 있다. 84년생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하겠다. 96년생 진행해도 무리가 없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다. 행운의 숫자 : 27, 77</p> <p>丑</p> <p>37년생 판세가 이저침 흘러가게 된 것 역시, 다 이유가 있느니라. 49년생 결집 속에 피어난 자생력이 근간을 이룰 것이니 현태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자. 61년생 결코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 분명히 있느니라. 73년생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85년생 안배를 잘 해야겠다. 97년생 두루 실패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31, 81</p> <p>寅</p> <p>38년생 용호상박의 치열한 경쟁이 보인다. 50년생 건너야 할 강에서 때맞추어 나룻배가 다가오는 격이다. 62년생 핵심 전략을 짚어서 처리할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74년생 자체 내에서 해결될 수도 있으니 미리 행거 돌 필요는 없다. 86년생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98년생 상당한 동력이 발생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6, 93</p> <p>卯</p> <p>39년생 참과 거짓을 헤아리기 힘들 것이니라. 51년생 막연하다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63년생 전체적인 판국에 맞는 미래 지향적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75년생 조절은 활력소가 되어 줄 것이다. 87년생 균열이 가기 전에 예비 점검을 확실히 하는 것이 안전하다. 99년생 전반적으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생산성을 높인다. 행운의 숫자 : 32, 67</p> <p>辰</p> <p>40년생 취약점을 보완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니라. 52년생 화는 많고 길조는 적으니 변동을 꾀하지 말라. 64년생 중도에서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만 실수하지 않는다. 76년생 앞뜰한 발상이 윤곽한 생활로 이롭게 됨을 명심하라. 88년생 편이한 사고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추다. 00년생 앞만서도 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29, 53</p> <p>巳</p> <p>41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그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53년생 큰 것은 놓치고 작은 것만 붙잡고 있는 모양새다. 65년생 소신껏 진행하면 상응하는 결과가 주어지리라. 77년생 명분과 이해득실 앞에서 상당히 고민할 수다. 89년생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 계획대로 진행하라. 01년생 안개 속에서 꿩구경하는 식이다. 행운의 숫자 : 43, 78</p>	<p>午</p> <p>42년생 중요한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54년생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매우 불길하다. 66년생 지근지처에 있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반드시 득이 있다. 78년생 순리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된다. 90년생 장애 요소는 없으니 편안하게 진행시켜도 된다. 02년생 주위의 환경에 따른 번수가 크니 대안을 마련하라. 행운의 숫자 : 44, 64</p> <p>未</p> <p>43년생 말만으로는 아니 되니 과감하게 실행함에 해결책이 될 것이다. 55년생 가치와 의미의 관점에서 기준 삼아야 할 것이다. 67년생 결과는 의외로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79년생 추구해 왔던 가치나 지향하고 있는 기운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판국을 떨 것이다. 91년생 파격적인 국제이니라. 03년생 철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행운의 숫자 : 16, 79</p> <p>申</p> <p>44년생 객관적인 사실로써 대해야 할 때다. 56년생 단순한 관점에서의 오판을 주의하자. 68년생 세상이 찬 서리를 만나지 마라. 80년생 활용 여부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달라진다. 92년생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현상 유지가 최상이 될 것이다. 04년생 삼사일연한다면 크게 이루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실수는 면하리라. 행운의 숫자 : 48, 56</p> <p>酉</p> <p>45년생 뜻밖의 인연을 주의해야만 발전을 기약한다. 57년생 이익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리라. 69년생 눈 먼 거북이가 얽혀 든 나무를 만나느 격이다. 81년생 위기를 기회로 극복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93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담비지 않으면 아니 된다. 05년생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목적하였던 바이다. 행운의 숫자 : 03, 55</p> <p>戌</p> <p>46년생 얽음이 떠도니 신중히 처신해야만 할 것이니라. 58년생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불리하다. 70년생 본전만 챙기더라도 선방한 것으로 자기 위안해도 된다. 82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낄 수다. 94년생 술선수범한다면 궁극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느니라. 06년생 파격적인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10, 90</p> <p>亥</p> <p>35년생 의외로 결과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47년생 번수에 맞지 않으니 욕심 부려서는 아니 된다. 59년생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파멸을 부를 뿐이다. 71년생 실익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무리가 없겠다. 83년생 앞만서도 모순에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이 보인다. 95년생 한계선을 허용한다면 수습하기 어려워진다. 행운의 숫자 : 15, 74</p>
---	--